



AgEcon SEARCH

RESEARCH IN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The World's Largest Open Access Agricultural & Applied Economics Digital Library

This document is discoverable and free to researchers across the globe due to the work of AgEcon Search.

Help ensure our sustainability.

Give to AgEcon Search

AgEcon Search

<http://ageconsearch.umn.edu>

aesearch@umn.edu

*Papers downloaded from **AgEcon Search** may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personal study only. No other use, including posting to another Internet site, is per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 (not AgEcon Search), or as allowed under the provisions of Fair Use, U.S. Copyright Act, Title 17 U.S.C.*

No endorsement of AgEcon Search or its fundraising activities by the author(s) of the following work or their employer(s) is intended or implied.

지역유형 구분과 농촌지역의 유형별 특성

성주인* 송미령**

Key words: 지역유형구분(Regional Classification),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도시농촌 상호작용(Urban Rural Interactions)

Abstract

The ve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rst, classify rural areas and then following this classification scheme, delve into their area-specific characteristics, especially concentrating upon their relationships to cities. Upon factor analysis, non-agricultural regional-economic factors, urban area factors, and suburbanization factors are found to be major determinants in classifying rural areas. Accordingly rural areas in Korea are classified into four major groupings: rural areas with strong emphasis on non-agricultural sector, areas with high degree of self-sufficiency, areas with strong interaction with cities, and finally, typical rural areas. Finally, after studying and comparing their characteristics, such as demography, farming households, and land uses, strong interaction with cities is judged not to be a propellant of their growth.

- | | |
|----------------------------|-------------------|
| 1. 서론 | 4. 지역유형별 농촌 특성 비교 |
| 2. 지역유형 구분의 전제와 방법 | 5. 결론 |
| 3. 요인분석을 통한 지역유형 구분 결과와 해석 | |

1. 서론

최근 들어 농업·농촌의 역할이나 비전 등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토공간상에서 농촌지역의 위치를 새로운 각도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논의가 증가하

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농촌의 미래는 도시와의 상호작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실제 많은 농촌지역에서 도시와의 관계에 따라 인구 특성, 산업 특성, 토지이용 특성 등이 변화되고 있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정도의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

* 연구원

** 부연구위원

다.¹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우리나라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도시와의 관계라는 측면에 집중하여 농촌지역의 유형별 제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역 유형화의 전제와 방법에 관한 부분이다. 지역 유형화와 관련되는 선행연구, 이 연구에서의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둘째, 지역유형 구분의 결과와 해석에 관한 부분이다. 국토공간 전체에서 농촌지역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국 시·군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지역유형 구분한 후, 각 지역유형별 특성 및 공간적 분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지역유형별 농촌 특성 비교에 관한 부분이다. 지역유형 구분 결과에 바탕하여 각각 농촌지역은 유형별로 인구, 산업,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도시와의 관계에 따라 각각의 특징이 형성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¹ 국가발전의 견인차로서 도시정책이 핵심적이며, 저발전국의 농촌개발을 위해 도시화가 주요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진작에 제기된 바 있다(Friedmann, J., 1973; Friedmann, J. & M. Douglass, 1978; Richardson, H. W., 1982). 이를 국가도시화 정책(national urbanization policy)이라 이름하며, 국내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개발에 의한 국토개발(김형국, 1983)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이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변화라면, 도시화의 조류에 대해 줄곧 수세적 입장을 지녀왔던 농촌개발 분야에서도 도시-농촌간 교류와 상호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정 기준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유형화하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국토공간상에서 매우 다양하게 관찰되는 공간적 현상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나름의 준거 틀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나아가 지역유형별로 적합한 정책 대안들을 발견하여 바람직한 국토의 미래상, 농촌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2. 지역유형 구분의 전제와 방법

2.1. 농촌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성분분석 및 요인분석, 군집분석이나 특정 지표에 의한 등급화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지역을 유형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 중 특히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지역유형 구분 사례들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군 행정구역을 단위로 분석한 후 전국 144개 농촌지역 정주생활권에 대해 도시근교형, 일반농촌형, 특수농촌형 등으로 지역유형을 구분했던 최양부 외(198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중심도시 인구 규모, 인구 증가율, 경지율을 유형화 지표로 삼고 등급화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유형을 구분한 바 있다.

둘째, 이정환(1987)은 전국 139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가구, 토지이용, 산업, 서비스, 생활환경, 재정, 접근성, 지가 등

총 53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11개 요인의 득점을 기초로 한 군집분석으로 지역유형을 구분하였다. 유형화 결과, 전국의 군 지역은 수도권대도시근교형, 목축·과수·어촌형, 서남해안어촌형, 동남부공업화진행형, 접적지 및 태백산간형, 영남내륙형, 서남부평야형, 발전잠재형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안성(1990)은 전라북도 내의 155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비농업화도를 나타내는 지표 8개, 농업화도를 나타내는 지표 10개를 이용하여 각각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유형을 구분하였다. 비농업화도 및 농업화도 지표 각각에서 제1주성분의 고유치 분포에 따라 읍·면을 등급화하고, 이 두 분석결과를 조합하여 9개 그룹으로 지역유형을 구분하였다.

넷째, 정주권 개발 대상 794개 면 지역을 공간적 단위로 삼고 35개 지표를 이용한 주성분분석을 한 후 지역유형을 구분했던 연구(신호철 외, 1993)도 있다. 그에 따라 농촌은 수도권근교촌, 내륙교통중심촌, 제조업중심촌, 내륙농업중심촌, 해안평야촌, 해안관광촌, 산지관광촌 등 7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다섯째, 장우환(1997)은 전국 1,257개 면 지역 중 임야율과 경지율을 기준으로 몇 개 대안으로 나누어 등급화함으로써 중산간지역을 구분해내고자 하였는데, 그 중 지리산권 중산간지역에 대해 인구, 가구, 토지이용, 농업구조, 산지 및 임업, 중심성 및 산업 등 13개 변수를 이용하여 주성분분석

을 실시하여 그 결과 얻어진 상위 3개 인자의 인자득점을 분석지표로 삼아 군집분석을 하여 지역유형 구분을 하였다.

여섯째, 논의의 초점을 과소화 지역에 집중하여 인구 감소율 지표를 근간으로 하고 인구밀도, 노령인구 비율까지 감안하여 과소화지역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등급화를 통해 과소화 산간지역, 과소화 중간지역, 과소화 평야지역으로 분류했던 연구(정기환 외, 1999)를 들 수 있다.

일곱째, 2000년 기준 전국 읍·면을 대상으로 논비율, 경지율, 농가율 등의 지표를 전국 평균을 감안하여 등급화하여 지역을 구분하고, 전국 농촌을 인구 증가 농촌지역, 평야부 논농사지역, 중간부 논농사지역, 발농사지역, 농업 비중 낮은 발농사지역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한 경우도 있다(박시현 외, 2001).

끝으로, 건교부·국토연구원(2002)은 전국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성, 농업성, 보전성을 나타내는 총 16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AHP법에 의한 전문가조사를 토대로 항목간 가중치가 반영된 점수값을 이용하여 토지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지역유형은 도시성, 농업성, 보전성의 강·약, 상호 중첩에 따라 8개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유형 구분과 관련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여기서는 농촌공간의 지역유형 구분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지는 위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공간 단위, 분석 지표 및 방법, 분석 결과 등을 요약하였다.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표 1>이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우선, 지역을 유 단위(주로 행정리)²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형화하는 공간 단위는 시·군, 읍·면, 마을 있다. 하지만 그 단위가 작아질수록 자료를

표 1 지역유형 구분 관련 선행연구 개요

| 연구자 | 공간 단위 | 지표 및 방법 | 결과 |
|-----------------|-------------------------------|---|---|
| 최양부 외(1985) | - 시·군 행정구역 | - 중심도시인구규모, 인구증가율, 경지율 - 등급화 | - 중심도시인구규모: 대도시형, 중도시형, 농촌형 - 인구증가율: 고성장형, 발전형, 정체형, 낙후형 - 지형조건: 평야형, 준평야형, 준산간형, 산간형 → 6개 지역유형 · 대도시근교농촌형 · 일반농촌형(평야, 중간, 산간) · 특수농촌형(접적지역, 도서지역) |
| 이정환(1987) | - 139개 군지역 | - 인구, 가구, 농가, 토지이용, 광공업, 공공서비스 수준 등 53개 지표 -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 | - 8개 지역유형 · 수도권대도시근교형, 목축과수어촌형, 서남해안어촌형, 동남부공업화진행형, 접적지및태백산간형, 영남내륙형, 서남부평야형, 발전잠재형 |
| 정안성(1990) | - 전라북도 155개 읍·면지역 | - 비농업화도 지표 8개 및 농업화도 지표 10개 - 주성분분석 및 등급화 | - 9개 지역유형 |
| 신호철 외(1993) | - 정주권 개발 대상 794개 면지역 | - 자연환경, 인구, 가수/촌락, 토지이용, 축산업, 광공업, 교통통신, 사업, 교육, 서비스, 관광, 문화, 재정, 접근성 등 35개 지표 - 주성분분석 | - 7개 지역유형 · 수도권근교촌, 내륙교통중심촌, 제조업중심촌, 내륙농업중심촌, 해안평야촌, 해안관광촌, 산지관광촌 |
| 장우환(1997) | - 전국 1,257개 면지역 | - 임야율, 경지율 - 인구 및 가구, 토지이용 및 농업구조, 산지 및 임업, 중심성 및 산업 등 13개 지표 - 등급화, 중성분분석, 군집분석 | |
| 정기환 외(1999) | - 전국 읍·면 지역 (726개 과소화 읍·면 선정) | - 인구감소율, 인구밀도, 노령인구비율 - 등급화 | - 3개 과소화 지역유형 · 과소화 산간지역, 과소화 중간지역, 과소화 평야지역 |
| 박시현 외(2001) | - 전국 읍·면지역 | - 논면적비율, 경지율, 농가율 지표 - 등급화 | - 5개 지역유형 · 인구증가농촌지역, 평야부농사지역, 중간부농사지역, 밭농사지역, 농업비중낮은밭농사지역 |
| 건교부·국토연구원(2002) | - 전국 시·군지역 | - 도시성, 농업성, 보전성을 나타내는 16개 지표 ² 여기서 행정리를 단위로 하였다 - AHP법, 중첩법 | - 8개 지역유형 · 도시성강한지역, 농업성강한지역, 도시성/농업성 모두 강한지역, 도시성/농업성 모두 약한지역, 보전성강한지역/보전성약한지역 |

² 여기서는 제외하였으나, 이정환 외(1993) 등은 도시성/농업성 모두 강한지역, 도시성/농업성 모두 약한지역, 보전성강한지역/보전성약한지역

언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서 시·군 단위로 지역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읍·면이나 마을에 대해 유형화를 할 때는 그 대상 범위를 도 단위나 특정 사례로 줄이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다. 둘째, 농촌지역 분류에 흔히 사용되었던 몇몇 지표의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제현상을 설명하는 준거로서 적실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유형 구분을 할 때 1980년대까지 즐겨 사용했던 전화보급률이나 도로포장률 등의 지표들은 오늘의 농촌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적당치 않은 지표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유형 구분에는 주성분분석, 군집분석, 특정 지표에 의한 등급화 등 여러 기법들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중 어느 것이 가장 적실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연구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지역유형 구분 결과를 참고하면, 그간 진행되었던 연구들의 경우, 도시근교지역이나 산간지역, 중간지역 등의 구분법과 같이 일본 농촌지역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분류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예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최근 들어 지역개발 분야 연구의 대상으로서 농촌공간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직접 관련되는 연구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농촌지역의 특성을 결정짓는 하나의 주요 변수라 할 수 있는 도시-농촌간의 상호작용 또는 도시화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된 경우는

별로 없다.

2.2. 인근 중심도시와의 관련성에 바탕을 둔 농촌지역 유형화

농촌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도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표 2>를 통해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전국 읍·면의 인구 추이를 1985년부터 살펴보면, 전국 대부분의 농촌에서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특히 전라남·북도에서 인구감소세가 두드러져 경기도의 경우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농촌의 인구를 흡입하거나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만한 대도시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를 해당 지역의 농가수 현황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극심한 전라남·북도의 경우, 전체 가구 대비 농가 구성비가 높아서 지역경제가 농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전업농가 비율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지역이 평야지대로서 규모화된 영농이 이루어지는 까닭도 있으나, 2·3차 산업 부문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중심도시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것도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농업 이외에 고용의 중심이 되는 다양한 산업들이 뿌리내릴만한 중심도시가 인근에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구 관련 지표만을 중심으로 간략

하게 살펴본 것이기는 하나, 농촌에서 지역 별로 나타나는 정주여건의 차이는 주변 도시와의 관계와 상당한 연관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향후 농촌 발전의 방향이 도시와의 연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내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최근의 인식을 비교적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촌의 유형화와 각 유형별 지역 특성을 도시와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2.3. 농촌지역 유형화를 위한 전국 시·군 대상 요인분석

농촌지역이 전체 국토공간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그 특징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부문의 지표들뿐만 아니라 도·농간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시사하는 바가 큰 변수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지역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시·군 지역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일단 우리나라 시·군 지역을 몇 가지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는 작업을 선행함으로써 농촌의 지역 유형별 특성 파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석 단위로서 시·군 행정구역 범위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가 있다. 시·군의 지리적 범역은 무척 광범위

표 2 지역별 읍·면 인구 증감 추이 비교

단위: 명

| 연도 시·도 | 1985 | 1990 | 1995 | 2000 | 연평균 증감률 (1985~2000) |
|-----------|------------|------------|-----------|-----------|------------------------|
| 합계 | 11,942,699 | 10,535,886 | 9,219,834 | 9,357,669 | -1.6% |
| 경기 | 1,420,029 | 1,508,663 | 1,549,973 | 1,910,275 | 2.0% |
| 전북 | 1,169,137 | 926,113 | 723,864 | 636,654 | -4.0% |
| 전남 | 2,045,540 | 1,739,468 | 1,282,120 | 1,182,579 | -3.6% |

주: 시계열에 따른 추이 변화를 보다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분석의 단위는 모두 2000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맞춤. 즉 2000년 당시 동부로 편입되어 있는 곳은 그 이전에 읍·면 행정구역에 속했다 할지라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해당 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 3 지역별 농가 관련 각종 현황 비교(2000년 읍·면 기준)

단위: 호, %

| 시·도 | 가구 수 (A) | 농가 수 (B) | 전업농가 수 (C) | 농가 비율 (B/A) | 전업농 비율 (C/B) |
|--------|-------------|-------------|---------------|----------------|-----------------|
| 전국 읍·면 | 3,079,570 | 1,211,401 | 840,669 | 0.393 | 0.694 |
| 경기 | 560,236 | 118,868 | 63,409 | 0.212 | 0.533 |
| 전북 | 223,799 | 120,887 | 89,835 | 0.540 | 0.743 |
| 전남 | 418,773 | 223,005 | 162,598 | 0.533 | 0.729 |

주: 해당 시·도의 동 지역을 제외한 읍부, 면부의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01,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2002, 『2000 농업총조사보고서』.

하여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도 다양한 성격의 소지역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또한 비농업적인 토지이용과 2·3차 산업의 발달이 타월한 시·군 소재지 지역의 경우 도시로 분류함이 마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읍·면 행정구역은 농촌을 등질지역으로 구분해낼 수 있는 보다 적합한 지리적 단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읍·면을 단위로 분석하는 데 가장 큰 걸림들은 읍·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가 인구, 가구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며, 각 시·군별로 통계자료의 항목 및 구조가 달라 전국에 걸쳐 빠짐없이 구득할 수 있는 자료도 거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전국의 165개 시·군 행정구역을 대상으로³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유형 구분을 하고자 한다. 그 이후에 농촌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각 지역유형별 농촌 특성들을 보다 세밀한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읍·면 행정구역 단위로 구축된 일부 데이터들을 활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떠한 변수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기법으로 요인분석을 시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인구특성, 일상생활권, 산업구조, 자족성 정도 등 다양한 범주의 변수들이 모두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변수들을 도·농간의 관계라는 개념과 연결지을 수 있도록 엄밀하게 규정짓고 각각의 변수들이 함축하는 바를 연구 목적에 맞도록 포착해내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인구 관련 특성, 통근·통학 특성, 지역경제 특성 등에 관련되는 14개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이들 14개 변수는 대략 다음과 같이 범주화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구 특성과 관련되는 변수로서, 연평균 인구 증감률(1990~2000년) 및 통근인구 비율이다. 전자는 지역의 활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전체 통근·통학 인구에서 통근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젊은 학생층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둘째, 통근·통학 관련 특성으로서 통근 및 통학 유입량, 시·군 내 통근 비율, 시·군 내 통학 비율의 네 가지 변수이다. 어느 지역으로 유입되는 통근 및 통학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곳의 중심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시·군 내 통근 및 통학 비율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 내에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중을 뜻하는데, 이는 그 지역의 자족성

³ 특별시와 광역시의 동 지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기로 한다.

표 4 요인분석 변수 항목

| 변 수 명 | 산 출 방 법 |
|------------|------------------------------------|
| 인구증감률 | 10년간 인구 증감률(1990년~2000년) |
| 통근인구비 | 통근·통학인구 중 통근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
| 통근유입 | 해당 시·군으로 유입되는 통근인구 |
| 통학유입 | 해당 시·군으로 유입되는 통학인구 |
| 종사자 수 | 각 시·군별 사업체 종사자 수 |
| 사업체 수 | 각 시·군별 사업체 수 |
| 시군 내 통근 비율 | 타 시·군에 유출되지 않고 해당 시·군으로 통근하는 인구 비율 |
| 시군 내 통학 비율 | 타 시·군에 유출되지 않고 해당 시·군으로 통학하는 인구 비율 |
| 농림업 종사자 수 | 2000년 인구주택센서스 기준 |
| 겸업농가 비율 | 2000년 농업총조사 기준 |
| 2종 겸업농가 비율 | 2000년 농업총조사 기준 |
| 1차산업 비율 | 2000년 인구주택센서스 기준 |
| 2차산업 비율 | 2000년 인구주택센서스 기준 |
| 3차산업 비율 | 2000년 인구주택센서스 기준 |

정도와 관련되는 변수이다.⁴

셋째, 지역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지역의 인구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넷째, 농림업 종사자 수, 겸업농가 비율, 2종 겸업농가 비율 등 농업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겸업농가 및 2종 겸업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농업 이외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고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려준다.

다섯째, 지역의 산업구조와 관련되는 변수로서 1차·2차·3차 산업 각각의 종사자 비율을 분석 변수로 이용한다.

이상과 같이 분석 대상이 되는 14개 변수들이 나타내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종합해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기 위한 다변량분석 기법으로서 요인분석을 진행코자 한다. 즉, 위의 14개 변수들 상호간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설명력 높은 몇 가지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탐색적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농촌지역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4>는 분석에 활용되는 14개 변수들과 각각의 산출 방법들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⁴ 시·군 내 통근·통학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느 지역의 경제구조가 자족성이 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느 지역이 인접지역들과 활발한 상호연계를 이루지 않고 침체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실제로 경제 규모가 크고 자족적인 성장 기반을 갖춘 도시뿐 아니라 농업에 치우쳐 있고 접근성이 불리한 낙후지역에서도 이 수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3. 요인분석을 통한 지역유형 구분 결과와 해석

3.1. 분석의 결과

전국 165개 시·군을 단위로 하여 총 14개 변수를 대상으로 산출한 상관행렬을 바탕으로 하여 직교회전(Vaimax 회전)의 방법으로 공통요인을 구해보면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은 모두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들 세 요인 중 제1요인이 전체 변동의 54.5%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2요인이 12.7%, 제3요인이 10.8%의 설명량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세 요인을 모두 합한 누적 설명량은 전체의 78.1%이다.

표 5 각 요인에 대한 변수들의 요인부하량

| 변수 항목 | 요인 1 | 요인 2 | 요인 3 |
|------------------|---------------|--------------|---------------|
| 3차산업 비율 | 0.872 | 0.305 | -0.072 |
| 2종 겸업농 비율 | 0.791 | 0.246 | 0.292 |
| 1차산업 비율 | -0.769 | -0.475 | -0.328 |
| 겸업농가 비율 | 0.746 | 0.214 | 0.291 |
| 농림업종사자 | -0.697 | 0.107 | -0.312 |
| 통근인구비 | -0.655 | -0.454 | 0.064 |
| 종사자 수 | 0.252 | 0.920 | 0.157 |
| 사업체 수 | 0.307 | 0.912 | -0.004 |
| 통학유입 | 0.119 | 0.812 | 0.104 |
| 통근유입 | 0.165 | 0.773 | 0.501 |
| 시군 통학비율 | -0.009 | 0.029 | -0.886 |
| 시군 통근비율 | -0.450 | -0.234 | -0.728 |
| 2차산업 비율 | 0.331 | 0.464 | 0.634 |
| 인구증감률 | 0.465 | 0.486 | 0.537 |
| 고유치(eigen value) | 7.635 | 1.785 | 1.519 |
| 개별 설명력(%) | 54.5 | 12.7 | 10.8 |
| 누적 설명력(%) | 54.5 | 67.3 | 78.1 |

3.2. 요인점수의 공간 분포 패턴 및 요인에 대한 해석

다음의 <표 6>은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별로 1.0 이상의 높은 요인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시·군들을 보여주고 있다. 각 요인별로 요인점수의 분포 패턴과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나는 변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분석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요인1의 경우는 3차산업 종사자 비율, 겸업농가 및 2종 겸업농가 비율의 요인부하량이 크게 나타났으며, 1차산업 비율, 통근인구 비율에 대해서는 높은 부(-)의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1차 산업 비중이 약하고 2·3차 산업 비중이 높은 성격의 요인이다. 공간적으로 보면, 평야지역보다는 농업 비중이 낮은 해안과 산간지역에서 요인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며, 전통적으로 농업 우위의 지역에서는 요인점수가 낮은 모습을 보인다. 또한 춘천, 원주, 강릉, 청주, 목포, 전주, 마산 등과 같이 지방 중심도시에서 요인값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요인1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변수들은 대체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깊은 관련을 갖는 것으로서, 농업 이외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타 산업의 발달 정도를 시사하고, 농외소득 기회가 풍부한지의 여부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비농업적 지역경제 요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공간적 분포 패턴은 <그림 1>과 같다.

표 6 각 요인별 요인점수 1.0 이상인 지역

| 구 분 | 요인점수 1.0 이상인 지역 |
|------------------------|--|
| 요인 1 (비농업적 지역경제 요인) | 속초(2.8742), 제주(2.6462), 목포(2.3515), 동해(2.3409), 진해(2.1705), 통영(2.1129), 계룡출장소(2.0697), 동두천(1.9617), 과천(1.8323), 의정부(1.6373), 청주(1.6325), 의왕(1.6143), 태백(1.6087), 전주(1.5773), 오산(1.5295), 강릉(1.4907), 춘천(1.4855), 군포(1.4756), 원주(1.3851), 중평출장소(1.3485), 거제(1.2622), 하남(1.1631), 광주(1.0835), 가평(1.0660), 구리(1.0656), 마산(1.0544), 인제(1.0260), 삼척(1.0046) |
| 요인 2 (중심도시 요인) | 수원(5.2727), 부천(3.3705), 성남(3.1563), 안산(2.8838), 안양(2.7576), 창원(2.6053), 천안(2.5906), 경산(2.2655), 용인(2.0813), 청주(2.0337), 포항(1.8654), 마산(1.8029), 고양(1.7510), 구미(1.5719), 전주(1.5493), 진주(1.5388), 김해(1.5243), 익산(1.5097), 경주(1.3351), 평택(1.1767), 화성(1.0288) |
| 요인 3 (교외화 요인) | 의왕(2.6524), 시흥(2.6167), 양주(2.5734), 군포(2.4714), 탈성(2.4478), 오산(2.1463), 칠곡(2.0406), 광주(2.0378), 화성(2.0127), 남양주(1.9285), 울주(1.9275), 기장(1.9194), 하남(1.9128), 용인(1.8735), 양산(1.8136), 광명(1.5515), 김포(1.5052), 과천(1.5019), 구리(1.4983), 고양(1.3931), 고령(1.2479), 의정부(1.2285), 안산(1.2236), 화순(1.1717), 완주(1.1591), 청원(1.1250), 함안(1.1205), 담양(1.0565) |

둘째, 요인2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그리고 통근·통학 유입 인구에 대해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으며, 요인점수가 1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거의 시 지역으로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대도시 인접 지자체이거나 천안, 전주, 구미, 창원, 마산, 진주 등 지방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다.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 지역이 충분한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심도시임을 암시한다. 이는 해당 시·군으로 유입해 들어오는 통근 및 통학 인구에 대해서도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요인2는 중심도시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공간적 분포는 <그림 2>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

셋째, 요인3에서는 해당 시·군의 통근 및 통학 발생량 중 타 시·군으로 향하지 않고

그 자체를 목적지로 하는 통근·통학 비율에 대해 부(-)의 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 거주 인구가 다른 시·군으로 통근이나 통학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 시·군에서 높은 요인점수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2차산업 비율에 대해서도 요인부하량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데, 제조업체가 대도시 외곽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깊은 것 같다.

이처럼 요인3의 경우는 대도시 주변의 주거 교외화라든가 사업체의 외곽 이전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외화 요인이라 칭할 수 있으며, 공간적 분포는 <그림 3>과 같다.

한편 요인2와 요인3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시·군의 공간적인 분포 양상을 인구주택센서스의 통근·통학 목적지와 대조해보면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 요인1(비농업적 지역경제 요인) 점수의 공간적 분포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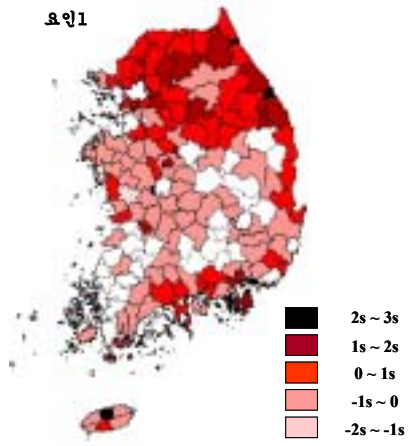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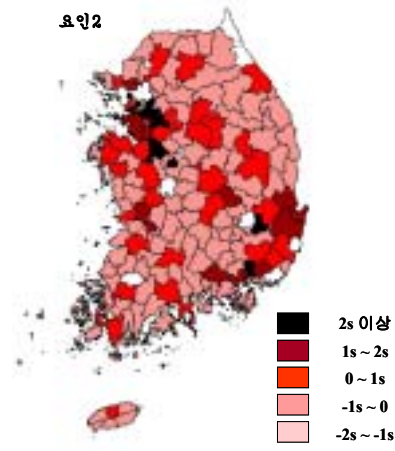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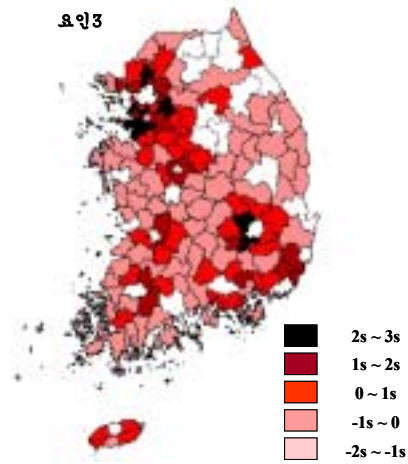


그림 2 요인2(중심도시 요인) 점수의 공간적 분포 패턴



* 범례의 s는 표준편차(이하 동일)

그림 3 요인3(교외화 요인) 점수의 공간적 분포 패턴



다음 <표 7>에서는 각 시·군의 통근·통학 발생량 중 10% 이상이 목적지로 삼고 있는 곳을 중심도시로 설정하고 그 영향권에 있는 지역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지역 통근·통학자의 10% 이상을 흡수하는 통근·통학 목적지들은 모두 요인2의 중심도시 요인에서 요인점수를 높게 받은 지역인 반면, 중심도시 통근·통학권에 포함되는 곳들은 대부분 요인3의 교외화 요인의 점수가 높은 시·군 들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요인2와 요인3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 4>의 상단 그림과 주요 통근·통학 중심 도시가 포괄하고 있는 권역(10% 통근·통학)을 보여주는 <그림 4>의 하단 그림을 비교해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두 그림에서 나타내는 지역은 공간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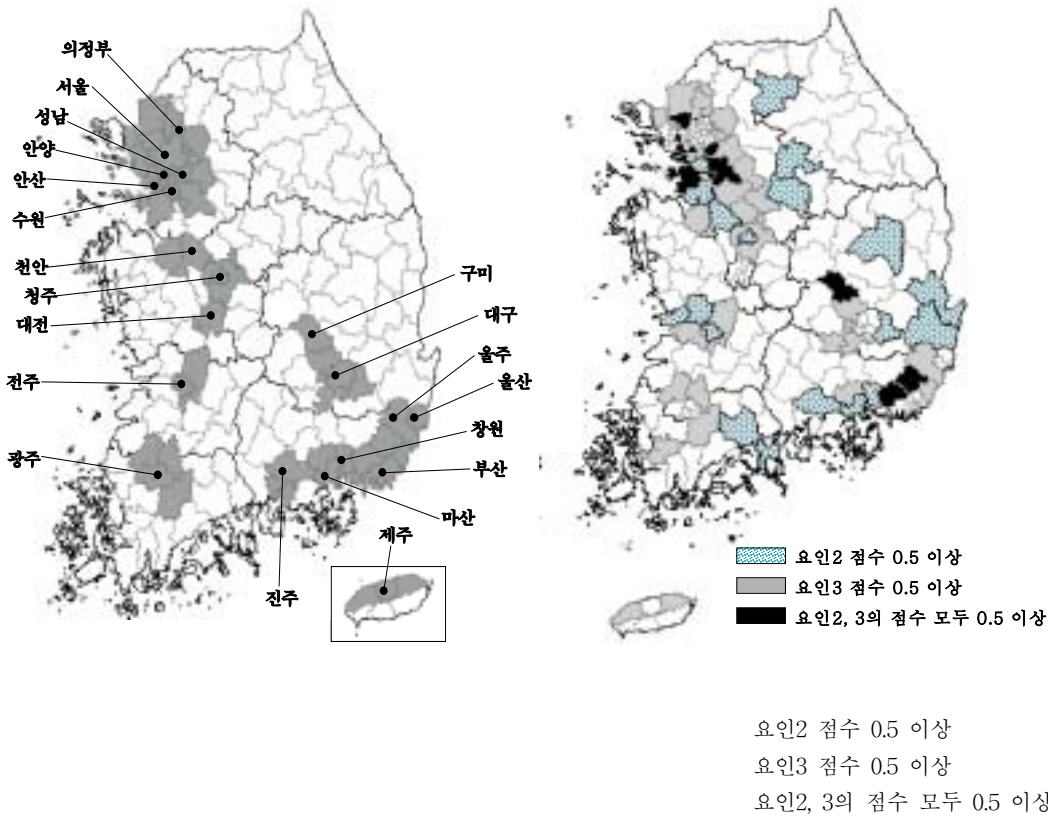
표 7 인근 중심도시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시·군 목록



| 지역 구분 | 중심도시 | 통근·통학권 해당 지역 |
|---------|------|--|
| 수도권 | 서울 | 과천(50.0), 광명(43.0), 고양(40.5), 하남(40.0), 구리(34.1), 의정부(33.2), 남양주(32.9), 성남(30.0), 부천(25.0), 안양(24.4), 군포(23.9), 의왕(21.2), 김포(19.9), 용인(16.1), 시흥(14.5), 광주(12.6), 양주(12.0), 파주(11.6), 인천(11.4) |
| | 수원 | 화성(14.0) |
| | 성남 | 광주(11.0) |
| | 의정부 | 양주(14.9) |
| | 안양 | 의왕(20.0), 군포(14.6) |
| | 안산 | 시흥(11.4) |
| 부산·경남권 | 부산 | 기장(20.5), 양산(19.0), 김해(15.3) |
| | 울산 | 울주(22.3) |
| | 울주 | 울산(14.2) |
| | 창원 | 마산(16.6), 진해(13.4) |
| | 마산 | 함안(10.6), 창원(10.4), 진해(10.0) |
| | 진주 | 사천(12.8) |
| 대구·경북권 | 대구 | 달성(29.9), 경산(19.6) |
| | 구미 | 칠곡(27.4) |
| 광주·전남권 | 광주 | 화순(24.0), 담양(18.4), 장성(11.9) |
| 대전·충남북권 | 대전 | 계룡출장소(17.5) |
| | 청주 | 청원(19.4), 증평출장소(17.3) |
| | 천안 | 아산(12.1) |
| 전북권 | 전주 | 완주(21.6) |
| 제주권 | 제주 | 북제주(18.6) |

주: () 안은 각 시·군의 통근·통학 인구 중 중심도시로 향하는 인구의 비율(%)임.
 자료: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근·통학편의 자료를 기초로 집계.

그림 4 주요 도시 통근·통학권 및 2, 3요인 강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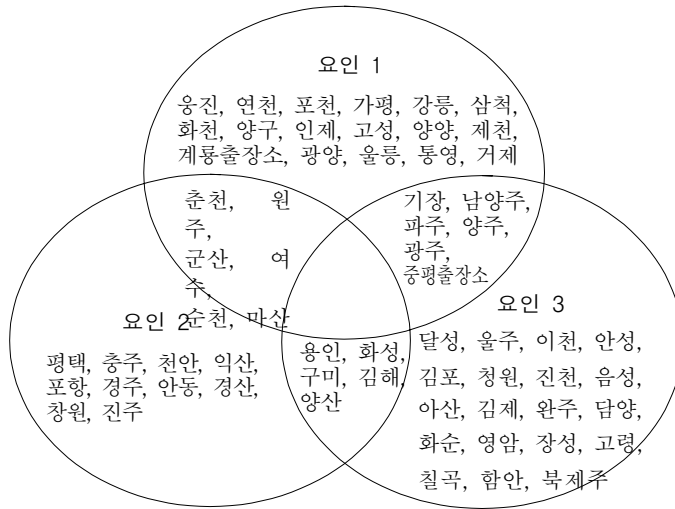
3.3. 지역유형별 농촌 특성 파악을 위한 요인 분석 결과 종합

이상에서는 도시·농촌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전국의 시·군 행정구역이 각 요인별로 어떠한 분포 양상을 보이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들 세 요인 각각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농업적 요소가 강한 곳, 자체 중심성이 높은 곳, 교외화가 진행되는 곳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모두 도시적인 성격이 강한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농촌지역은 이들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시·군들 속에 상당부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는 도시·농촌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국의 시·군을 통틀어

그림 12 각 요인별로 높은 득점을 기록한 시·군



분석한 것이어서, 농촌 자체에 한정되는 보다 세부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현재까지의 요인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을 보다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지역유형 구분을 재설치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분 대상으로는 수원, 안산, 하남 등과 같이 순수하게 동부로만 이루어진 곳들을 제외하고 행정구역상 도·농 복합시 및 군 지역으로 한정한다.

앞의 분석 결과는 요인 1, 2, 3으로 대표되는 각기 다른 특성에 따라 전국 시·군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각 요인별로 시·군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각 요인별로 높은 득점을 기록한 지역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중복되는 요소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가려내어 지역을 분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비농업적 지역경제 요인이라 지칭할 수 있는 요인 1의 점수를 가지고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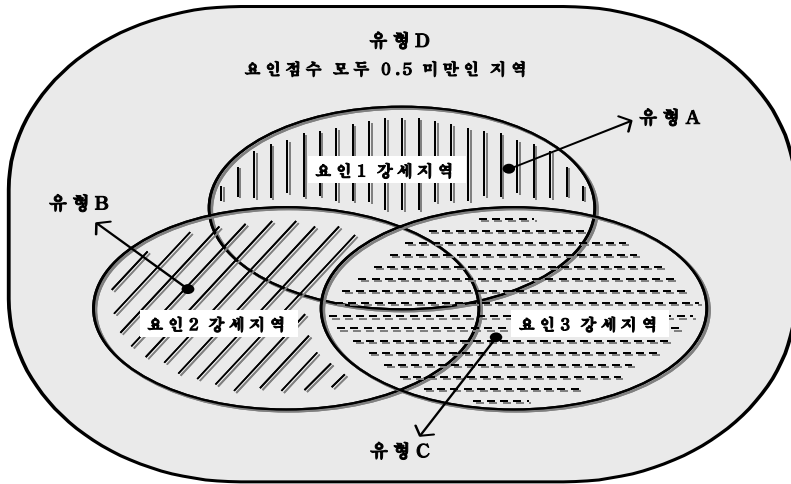
적으로 비농업적인 지역경제 구조가 우월한 지역들을 가려낼 수 있다. 요인 1에서 높은 득점을 얻은 곳을 살펴보면,⁵ 첫째, 지방의 중심도시로서 2차, 3차 산업으로 복합적인 구성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 둘째, 농업의존도가 여타 농촌지역에 비해 낮으며 농외소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우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⁶

이 중 전자의 경우처럼 지방의 중심도시 기능을 갖는 지역은 중심도시 요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요인 2에서도 높은 득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춘천, 원주, 군산, 여수, 순천, 마산). 또한 요인 1의

⁵ 해당 요인에서 강세를 보인다고 판정할 수 있는 점수 값을 정확히 지칭하기는 어려우나 여기에서는 각 요인별로 0.5 이상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시·군을 기준으로 강세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짓고자 한다.

⁶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요인1은 3차산업의 비율 및 제2종 겸업농의 비율과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1차산업의 비율 및 농림업종사자 수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림 6 지역 유형 분류 과정에 대한 개념도



강제지역 중에는 교외화 요인이라 지칭할 수 있는 요인 3에서도 공통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곳도 있는데(기장, 남양주, 파주, 양주, 광주 등), 이러한 곳은 대체로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요인 1의 강제지역 중에서 요인 2 및 요인 3과는 중복되지 않는 지역(즉, 요인 2, 3의 득점이 높지 않은 지역)만을 골라 살펴보면, 이들은 대체로 중심도시 발달은 미약한 편이지만,⁷ 농업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촌지역과는 다소 구분되는 곳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처럼 순수하게 요인 1에서만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지역을 별도로 묶어서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유형A: 비농업 강제 유형).

요인 2의 경우는 도시의 중심성 정도와 관련이 깊은 요인인데, 이 중에도 역시 요인 3에서 높은 득점을 얻고 있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용인, 화성, 구미, 김해, 양산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요인 3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요인 2의 득점 역시 높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중심성이 강하거나 경제적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기보다는 대도시 주변이라는 입지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여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세력을 지닌 중심도시들만을 순수하게 가려내어 하나의 유형으로 묶을 수 있도록 요인 2 강제지역 중에서 요인 3에서도 공통적으로 높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순수하게 요인 2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곳만을 가려내어 또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유형B: 자족성 우세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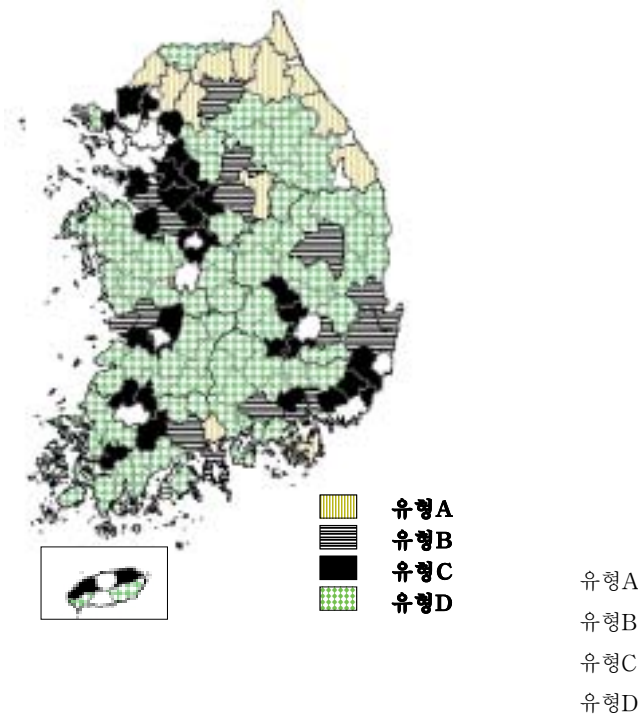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유형A와 유형B 지역을 분류하고 난 후, 요인 3에서 높은 득점을 얻은 30개 시·군을 별도로 묶어서 하나의 단일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⁷ 2000년의 인구 규모가 20만 명을 넘고 있는 강릉시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표 8 지역 유형별 해당 시·군 목록

| 구 분 | 시·군 수 | 유형별 해당 행정구역 |
|------------------|----------------------|--|
| 유형A (비농업 강세형) | 시6, 군10, 출장소1 | 웅진, 연천, 포천, 가평, 강릉, 삼척,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제천, 계룡출장소, 광양, 울릉, 통영, 거제 |
| 유형B (자족성 우세형) | 시16 | 평택, 춘천, 원주, 충주, 천안, 군산, 익산, 여수, 순천, 포항, 경주, 안동, 경산, 창원, 마산, 진주 |
| 유형C (대도시 통합형) | 시11, 군18, 출장소1 | 기장, 달성, 울주, 남양주, 용인, 과주, 이천, 안성, 김포, 양주, 화성, 광주, 청원, 진천, 음성, 증평출장소, 아산, 김제, 완주, 담양, 화순, 영암, 장성, 구미, 고령, 칠곡, 김해, 양산, 함안, 북제주 |
| 유형D (일반 농촌형) | 시14, 군63 | 강화, 여주, 양평,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나주,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김천,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사천, 밀양, 의령, 장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남제주 |

그림 7 전국 시·군(140개)에 대한 유형 구분도



(유형C:대도시 통합 유형).

마지막으로는 이 세 가지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농촌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짐작되는 곳들을 한데 묶어 제4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유형D: 일반 농촌 유형).

<그림 6>에서는 이러한 유형 분류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유형별로 해당되는 시·군들의 목록은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4. 지역유형별 농촌 특성 비교

이와 같이 A(비농업강세형 농촌지역), B(자족성우세형 농촌지역), C(대도시통합형 농촌지역), D(일반 농촌지역)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전국의 시·군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농촌과 관련되는 몇 가지 지표들을 중심으로 유형간 비교 작업을 수행하여, 각 유형에 따라 도시와의 관계에서 어떤 특징이 있고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차별적인 정책

목표가 요구되는지 개략적인 시사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4.1. 인구 특성

각 유형별 인구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논의를 농촌지역에 관련되는 사항들로 한정시키기 위해 각 시·군의 읍·면부 인구 특성까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읍·면부의 인구는 대도시통합형인 유형C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 농촌형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D지역의 경우가 인구 감소폭이 크며, 비농업강세형인 유형A지역 역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은 상식적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현상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족성우세형인 유형B지역과 대도시통합형인 유형C지역의 경우이다. <표 10>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방 중심도시 성격이 강한 유형B지역에서 읍부 및 면부의 인구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늘어난 곳과 줄어든 곳이 선명히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산, 경산, 천안, 창원 등은 서

표 9 유형별 인구 특성 비교

| 유형 | 해당 시·군 평균 인구(2000년) | 연평균 증감률 (각 시·군 평균) | 연평균 증감률 (읍·면부) |
|----------------|------------------------|-----------------------|-------------------|
| 유형 A (비농업 강세형) | 76,416명 | -0.8% | -1.8% |
| 유형 B (자족성 우세형) | 322,560 | 1.1 | -0.2 |
| 유형 C (대도시 통합형) | 140,250 | 1.3 | 0.9 |
| 유형 D (일반 농촌형) | 65,701 | -2.9 | -3.1 |

주: 연평균 인구 증감률은 199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10년간의 변화치를 기준으로 함. 인구 자료는 센서스 조사를 기초로 채구성.

표 10 유형B 및 유형C 지역의 인구 증가지역과 감소지역 비교

| 유형 | 구분 | 시군 | 전체인구 (명) | 읍·면인구 (명) | 전체 연평균 증감률 (%) | 읍·면 연평균 증감률 (%) |
|------------------|-----------------------|-------|-------------|--------------|-------------------|--------------------|
| 유형B (자족성 우세형) | 읍·면 인구 증가 지역 | 마산시 | 434,371 | 75,842 | -2.0 | 7.3 |
| | | 경산시 | 228,206 | 120,764 | 4.6 | 3.6 |
| | | 천안시 | 417,835 | 131,862 | 2.9 | 2.6 |
| | | 창원시 | 517,410 | 43,574 | 3.8 | 2.3 |
| | | 원주시 | 268,352 | 58,028 | 2.3 | 1.1 |
| | 읍·면 인구 감소 지역 | 군산시 | 272,715 | 52,379 | -0.5 | -2.7 |
| | | 익산시 | 323,687 | 78,466 | 0.5 | -3.0 |
| | | 여주시 | 303,233 | 49,671 | -0.1 | -3.2 |
| | | 안동시 | 182,098 | 55,775 | -0.8 | -3.6 |
| | | 순천시 | 265,930 | 68,356 | -0.2 | -4.1 |
| 유형C (대도시 통합형) | 읍·면 인구 증가 지역 | 용인시 | 386,124 | 309,025 | 7.5 | 8.2 |
| | | 양산시 | 191,975 | 136,215 | 6.4 | 7.0 |
| | | 남양주시 | 340,932 | 261,904 | 5.5 | 6.4 |
| | | 광주군 | 125,943 | 125,922 | 5.1 | 5.1 |
| | | 달성군 | 148,552 | 148,596 | 4.7 | 4.7 |
| | 읍·면 인구 감소 지역 | 북제주군 | 87,368 | 87,402 | -2.2 | -2.2 |
| | | 장성군 | 49,703 | 48,954 | -2.2 | -2.3 |
| | | 담양군 | 54,597 | 54,603 | -3.0 | -3.0 |
| | | 김제시 | 102,589 | 58,969 | -3.7 | -4.6 |
| | | 증평출장소 | 29,233 | 23,716 | -3.2 | -5.2 |

주: 1) 인구 증가 지역과 감소 지역은 해당 읍·면의 인구 증감율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순으로 5개씩을 뽑은 것임.
 2) 인구 증감률은 센서스 인구 기준으로 1990년에서 2000년까지의 변화율임.

울과 부산을 잇는 이른바 국가의 발전축 상에 놓여 있는데, 이들 지역은 농촌인 읍·면부에서도 예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하고 있기는 하나 지난 개발연대의 성장축에서 장기간 빗겨나 있었던 호남지역의 도시들은 농촌부만이 아니라 행정구역 전체적으로도 인구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이들 외에도 자족성우세형인 유형B지역에 속하는 지역들 중 많은 경우는 행정구역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농촌부라고 할 수 있는 읍·면부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지역

전체 성격이 도시화되는 것이 농촌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대도시 경제권에 포섭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형C지역 역시 해당 시·군들의 농촌부인 읍·면부 인구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동일 유형 내에서도 분명히 구별되는 두 범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용인, 양산, 남양주, 광주 등과 같이 큰 폭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모두 서울 및 대도시 근교에 자리잡고 있어 도시인구 교외화 현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반면, 장성, 담양, 김제, 북제주, 증평 등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큰 폭으로 읍·면부의 인

표 11 지역유형별 읍·면부 농가 및 전업농가 비율

단위: %

| 유형 | 읍·면부 농가 비율 | 전업농가 비율 | 겸업농가 비율 | 농가 비율 | |
|----------------|---------------|------------|------------|--------|--------|
| | | | | 1종겸업농가 | 2종겸업농가 |
| 유형 A (비농업 강세형) | 29.6 | 54.3 | 45.7 | 17.8 | 28.0 |
| 유형 B (자족성 우세형) | 40.8 | 63.6 | 36.4 | 17.5 | 18.9 |
| 유형 C (대도시 통합형) | 31.5 | 59.3 | 40.7 | 18.2 | 22.5 |
| 유형 D (일반 농촌형) | 50.7 | 73.0 | 27.0 | 14.0 | 12.9 |

주: 위의 값들은 각 유형별 시, 군에 포함되는 읍, 면의 농가 관련 수치를 평균한 것임.
 자료: 2000년 농업총조사의 각 시·도편의 값을 집계.

구가 줄어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 지역 역시 광주광역시나 전주시, 청주시 등 비교적 큰 규모의 도시와 인접해 있어 해당 중심도시로 출퇴근하는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중심도시들의 경우에는 인접 시·군으로 주거지 교외화가 활발히 일어나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을 일으킬만한 도시세력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4.2. 농가 관련 특성

다음의 <표 11>은 각 시·군 읍·면부(동부 제외)의 농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유형별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일반 농촌형인 유형D 지역에서 농가 비율이나 전업농가 비율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농업외 수입이 농업 수입보다 많은 2종 겸업농가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농업 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잘 보여준다. 반면 지역경제의 비농업적 성격이 강한 유형A 지역에 속하는 곳에서 농가 비율이 다른 곳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종 겸업농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유형D지역과 대조를 이룬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대도시통합형인 유형C지역에 속하는 시·군들의 경우, 농가 관련 수치에 있어 해당 유형 내에서도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즉, 남양주, 양산, 용인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고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 유입을 경험한 지역에서는 농가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담양, 장성 등은 대도시(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어 통근·통학 인구이동 면에서는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농업적 특성이 여전히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표 12 유형C지역의 읍·면 농가 비율 비교, 2000

단위: %

| 구분 | 시·군명 | 농가 비율 | 전업농가 비율 |
|-------------|--------|-------|---------|
| 농가 비율 높음 | ↑ 김제시 | 61.8 | 73.3 |
| | 담양군 | 58.6 | 69.4 |
| | 장성군 | 55.1 | 77.4 |
| | 영암군 | 53.8 | 81.7 |
| | 고령군 | 46.9 | 80.0 |
| 농가 비율 낮음 | 기장군 | 11.9 | 51.6 |
| | 광주군 | 11.5 | 39.6 |
| | 용인시 | 8.7 | 47.4 |
| | 양산시 | 8.2 | 52.3 |
| | ↓ 남양주시 | 6.1 | 46.6 |

주: 유형 C에 해당하는 지역들 중 농가 비율 기준으로 상·하위 5개 시·군을 뽑은 것임.

이는 일정 지역이 도시와 통합된다고 하여 전체 지역 내 한 부분으로서 농촌지역의 특성이 동반 변화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4.3. 토지이용 관련 특성

토지이용에 관련되는 지표들도 지역유형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간(1990년~2000년)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역시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대도시통합형인 유형C지역의 경우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경지면적의 경우는 유형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모두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비농업강세형인 유형A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들 지역은 산간이나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농업적 생산기반 면에서 다른 평야지대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에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경작을 포기한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이른바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된 진원지라 할 수 있는 대도시

통합형인 유형C지역들을 중심으로 토지이용 관련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울주, 광주(경기), 화성, 담양, 양산, 장성, 칠곡, 김해 등으로 나타나는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오히려 그 증가세가 뚜렷하다. 울주군의 경우 행정구역 개편과 더불어 지정 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며, 여타 지역도 1990년대 이후 택지 개발이 잇따랐던 것이 그 배경이다. 경지면적은 경기도 광주(-35%), 양주(-27%), 용인(-27%), 김포(-26%), 남양주(24%), 김해(-23%) 등의 순서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수도권에 위치한 시·군에서 단연 그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5. 결 론

이상의 지역유형 구분 작업은 공간적 측면에서 농촌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까지 포괄하는 전국의 시·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출한 각 유형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지표들을 이용하여 농촌과 직접 관련되는 특성들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각 유형별로 바람직한 도시와의 관계를 통한 농촌 정주여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국토공간상에서 농촌이 중심도시로부터의 영향을 통

표 13 유형별 경지 면적 및 도시계획구역 면적 변화

| 구 분 | 시·군 평균 경지 면적 변화율(%) | 도시계획구역 평균 증가 면적(km ²) |
|----------------|---------------------|-----------------------------------|
| 유형 A (비농업 강세형) | -18.3 | 3.5 |
| 유형 B (자족성 우세형) | -13.2 | 25.9 |
| 유형 C (대도시 통합형) | -14.8 | 45.6 |
| 유형 D (일반 농촌형) | -8.5 | 4.9 |

주: 1990년과 2000년의 자료 간 비교 수치임. 해당 년도 각 시·도 통계연보를 참조함.

해 지역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지역별 요인점수 분포 패턴을 통해, 도시와 매우 밀접한 기능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외화 지역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 대도시와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농업 이외에 타 산업의 비중이 두드러지는 곳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통근·통학 등의 측면에서 인접 대도시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시근교지역의 경우에도 그것이 수도권에서 경부축으로 이어지는 국토의 성장축상에 놓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정주여건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다. 지방중심도시와 인접한 농촌 역시 해당 모 도시와 더불어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도시와 인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침체를 면치 못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 역시 서울-부산으로 이어지는 대도시 회랑에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국가 발전의 견인차로서 대도시 성장축이 여전히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농촌의 미래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각각의 지역유형에 따라 향후 농촌의 발전 방향 및 계획 과제도 각기 달라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우선, 도시화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교외화지역의 경우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수단을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 중심도시와는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농업에 대한 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은 무리한 도시적 거점 형성이 큰 유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도시적 거점 형성은 오히려 농촌의 상대적 침체를 결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이라든가 도시·농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연자원과 경관의 보전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보다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비교적 자체 중심성이 높은 도시지역과 행정구역 통합을 이룬 도·농 복합형태의 농촌에서는 각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혐오도 높은 광역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와 갈등을 행정적으로 원활히 조정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경우들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토 공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농촌지역은 요인분석 결과 세 가지 요인 각각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여타 지역과 비교할 때 농업 중심의 지역경제 특성이 탁월한 곳으로서 난개발을 억제한다거나 계획적인 토지이용 질서를 구축하는 등의 과제보다는 농촌의 정주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대비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 중심도시와의 관계 형성이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라 판단되는데, 이 과정이 일방적인 도시인구 유입이나 도시적 산업의 유입 등에 치중해서는 현실적으로 큰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산업적

으로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기반 강화와 함께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에 기반해 있는 주민의 정주의식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을 맺기에 앞서 이상의 연구가 지니고 있는 한계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국 단위에서 지역 유형화를 시도한 까닭에 논의의 수준이 세부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역 유형화를 통해 더욱 실천적인 함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각 유형에 속하는 몇몇 사례들을 뽑아내어 다각도로 실증적인 비교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연구의 단위는 보다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읍, 면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문에서는 각 유형간 읍, 면 특성을 비교, 기술함에 있어 인구, 농가 관련 지표, 토지이용 등에 한정하여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수준에서만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의도한 바대로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농촌의 정주여건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지역개발 차원의 의미를 갖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유형별 특성을 보다 분명하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지역 유형화 연구가 실천적인 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은 모두 후속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다.

참고문헌

김형국. 1983.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 박영사.
 건교부, 국토연구원. 2002.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방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박시현 등. 200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실천을 위한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국토연구원.
 신호철 등. 1993. 『농촌마을 및 주택에 관한 연구』. 농어촌진흥공사·농어촌연구원.
 이정환. 1987. “한국농촌지역의 유형구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우환. 1997. “한국 중산간지역의 구분과 특성에 관한 실증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기환 등. 1999. 『농촌 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안성. 1990. “농촌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유형구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양부 등. 1985. 『정주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riedmann, J., 1973. *Urbanization,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Beverly Hills: Sage.
 Friedmann, J. & M. Douglass. 1978. “Agropolitan Development: Towards a New Strategy for Regional Planning in Asia.” Fu-Chen Lo & K.. Salih(eds.), *Growth Pole Strateg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sian Experience and Alternative Approaches*, Oxford: Pergamon.
 Richardson, H. W., 1981. “National Urban Development Strategies in Developing Countries.” *Urban Studies*, Vol. 18, pp.267~283.

■ 원고접수일 : 2003년 5월 15일
 원고심사일 : 2003년 5월 19일
 심사완료일 : 2003년 6월 18일